

남원시, 문화관광 융성 연다

합과우 모노레일 2020년 완공 계획

남원가야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남원시는 민선 7기를 문화관광 융성 시대의 완성의 시기로 목표로 설정하고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남원시는 먼저 광한부원~춘향테마파크~합과우유원지를 둘러보는 합과

우 모노레일(2.3km) 설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남원시는 2020년 합과우 모노레일 사업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민선7기 문화관광 융성 시대 완성을 위해 내년에 사업을 착



남원시는 민선 7기를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해 2020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며, 당초 50억원이었던 사업비를 70억원으로 늘려 모노레일 설치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인 승강장, 승객대기실, 정류소, 식당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명회 등을 이미 마친 상태이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또한 남원가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유곡리와 두리리 가야고분군은 지난 3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데 이어 5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지정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실행한 뒤 내년 하반기에 전국에서 5~10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되면 5년 동안 200억원(국비 100억, 시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품격높은 문화관광 기반사업을 추진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훈몽재, 조선 유학교육 산실 역할 '톡톡'

전주대·원광대 학생 입교... 1억 5천 들어 시설보강

순창 훈몽재에 정통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조선 유학교육의 산실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훈몽재에는 방학을 맞아 7월 한달 동안 전주대, 원광대학교에서 논어, 대학, 맹자 등 한학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 40여명이 더위를 잊고 유학 공부에 심취해 있다. 지난 6월에는 성균관대 학생 40여명이 방문해 김충호 산장 등 훈몽재 훈장들에게 정통 유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 합숙 강의다. 특히 8월에는 중국 남창대학 및 호남과기대학 교수와 학부생 40여명이 유학 강독을

위해 순창 방문도 예정돼 있어 훈몽재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교육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훈몽재에서는 유학과 예절 교육을 위해 인근 시산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한학교육을 주 1회 진행하고 있다. 또 순창교육지원청 도서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한문교육을 실시해 훈몽재가 정통 유학교육의 산실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과 기초 한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의 역할도 인정 받고 있다.

군은 올해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냉·난방기설치, 단열재 보강, 장관교체 공사도 추진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훈몽재를 시작으로 쌓여온 둔전리부터 북흥면 하리까지 6km 도보여행 코스인 선비길도 조성해 찾는 이들의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선비길은 전북 1000리길에도 선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과 빼놓지 않은 독특한 길로 인정 받고 있다.

황송주 군수는 "훈몽재가 방학을 맞아 정통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훈몽재가 조선 유학의 맥을 잇는 교육의 산실로 자리잡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업인 창업지원 나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2018년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마쳤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존 가공사업장을 운영 중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된 이번 사업은, 산내면에 위치한 한

그루지리산(대표 정영상)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업체는 남원에서는 드문 가시오가피와 헛개 가공물이 주력 상품인 한그루지리산의 사업장 리모델링, 원액 농축 가공장비, 포장개선 등을 지원했으며, 그동안 노후된 바닥시설 및 외벽을 향균 예폭시 도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최신 가공 장비, 포장 재료를

일신해 HACCP 시스템에 걸맞는 위생적이고 효율성 높은 작업 환경을 지난 4월 27일 완료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비즈니스 시스템 및 기술 취약점을 보완해 소규모 창업구조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각장애인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임실군, 하계 수련회 성료

임실군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 임실지회(회장 허용욱)는 지난 13일 성수면 성수산가든에서 '임실군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심민 군수를 비롯해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한완수 전라북도의회부의장, 김원경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전북지부장, 시각장애인 회원 및 주요 기관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체로운 예술단공연과 회원의 장기를 뽐내는 노래자랑이 열려 흥을 돋우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축사를 통해 "임실군 관내 300여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문화탐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능력을 발굴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청 SNS, 사랑과 소통의 대명사

민선 7기 응원 참여, 1만여명 관심 속 역대 최대 인기

올해 새롭게 단장한 임실군청 페이스북 등 SNS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폭발적 인기를 끌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기치로 시작한 민선 7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성원과 기대감이 한층 더 해지면서 임실군청 SNS가 주민들과의 새로운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선 7기 임실군에 바란다'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게시물 총 도달 수가 1만 3,6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공감과 댓글, 공유를 통해 게시물 확산에 직접 참여한 인원도 2,071명으로, 2000여명 이상이 응원 열기에 동참했다.

이번 이벤트는 민선 7기를 맞아 임실군과 심민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변화와 도약의 임실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응원 댓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임실군민이 주를 이룬 가운데 출향민, 타지역민 등 다양했다.

댓글에는 "취임식없는 취임이 더 빛나는 시작이 될 겁니다. 4년 동안 군민을 위해 고생해주세요", "작은 소리에 귀기울일 줄 아는 멋쟁이 군수님이시길...", "전국에서 제일가는 임실로 올려주세요", "살기좋은 임실~좋은 군수님이 함께하는 민선 7기 잘 부탁드립니다", "임실군의 살림을 짊어지고 가실 군수님, 응원하겠습니다" 등 심 군수를 향한 응원

과 격려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을 취소한 것에 대한 청찬댓글도 쏟아졌다. 군청 페이스북 등에는 "민선 7기 첫 업무를 운안면 재해위험지역 방문으로 시작해서 첫 단추를 잘 낀 것 같아 좋네요", "취임식을 취소하시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제대로 된 리더가 나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등의 감동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올해 초 새롭게 개편한 임실군청 SNS는 무겁고 딱딱한 정책홍보 대신 '작지만 큰 걸음 이야기'와 지역의 훈훈한 소식, 농촌이야기, 아름다운 풍경, 행정서비스, 맛집 정보, 기상정보, 주요행사 등 감성 중심의 글과 실생활에 필요한 군청 소식 등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매주 한편의 시와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지만 큰 걸음 이야기'는 타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민들의 관심까지 받으며, 행정이 운영 하는 SNS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심민 군수는 "민선 7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많은 분들이 응원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마음깊이 새겨 거기에 부응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실군청 SNS는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써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SNS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불거리, 떡거리, 줄길거리,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 중심의 콘텐츠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과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관점의 저출산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개가 서면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장실사와 사업발표를 통해 7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이루며 지속 발전하는 사회구현을 목표로 '지리산권 거점형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립'을 응모하였으며 ▲지리산권 거점형 서비스 제공 ▲세대통합 양육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리산권 거점형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2020년까지 연면적 2,000㎡(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시간제보육, 육아지원인력 확보를 위한 (조)부도교육, 도서·장난감 택배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실에 담당 1명과 실무자 1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강화

순창군이 전북지역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보건의료원 회의실에서는 보건의료원, 안전건설과, 산림공원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지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순창군내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현황과 예방법, 각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 방향 결정 단계별 대처계획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는 진드기 예방물품인 기피제를 세대별 가구당 1병씩 배부 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각 읍·면 마을방송, 교육장, 행사장, 시장 등을 통해 지역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수칙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현재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